

인생은 타이밍

요 4:1-3, 눅 3:19-20, 막 1:14-15, 마 4:12-17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경험합니다. 언제 무엇을 사고파는지,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학창시절 고백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친 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열심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언제"라는 때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그리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매칭 사역을 보면,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선택, 만남의 순서가 약간만 달라졌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자매는 이별의 상처에 묶여 현재의 기회를 놓치고, 또 다른 자매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만남을 하나님의 복으로 붙잡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주어진 타이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라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작정하고 설계해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1.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오늘 본문에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요한이 잡힌 후", "때가 찼고", "이 때부터", "비로소"라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때가 찼고"(막 1:15)에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크로노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 은혜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카이로스의 때에 맞추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지만, 그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2.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본문들을 따라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기하고, 그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제 그 시기와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필요를 느끼십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죄를 책망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신 후 "이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사야의 예언 성취로 연결하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증언합니다.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시기를 피해 유대를 떠나셨지만, 더 안전한 곳으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는 헤롯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점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영토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 앞에서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의 장소와 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어떤 위협도 자신의 때를 앞당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중심에는 늘 '십자가의 때'가 있었고, 모든 사역과 이동

은 그 때를 향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시대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철저히 준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잡힌 후", "이 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준비의 시대는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지 세례 요한 개인의 불행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준비만, 공부만, 예비만, 머릿속 계획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고 하실 때, 실제 순종과 실제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때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3. 회개와 무던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복음을 직면하고, 내 죄를 직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때를 고집하며 살아온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직면한 사람, 자기 죄를 진지하게 직면한 사람은 남의 죄와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의 실수와 부족함이 내 마음을 뒤흔들 만큼 크게 보인다면, 아직 내 죄를 깊이 보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본 사람에게서 상대의 꼬장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곧 '무던함'이 생깁니다.

이 무던함은 단순한 성격적 온순함이 아니라, 회개에서 나온 영적 태도입니다. 무던한 사람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압니다. 당장은 저주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의 때 안에서 결국 복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할 줄 압니다. 이 무던함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붙잡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속이 좁은 사람, 무던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4. 결론

지금 우리는 새 예배당에서 새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적으로도 '새 타이밍'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공간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이곳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장비 하나, 재정 하나, 목회자의 지난 시간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이 시점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의 타이밍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전 방식 그대로 신앙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무던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 삶을 드립니다. 제 계획과 제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제 때를 굴복시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때부터 비로소"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카이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